


장정윤의 현대무용 2013



# 종이 위의 감성을 모으다.

Chang Chung Yoon Contemporary Dance Performance



2013. 9. 21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공연문의 051-200-7819

주최 | 장정윤의 현대무용 후원 |  부산문화재단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부산문화재단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본 공연은 2013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 “종이 위의 세계”

## 1 안 무 의 도

종이책에서 만난 시와 철학의 언어를 이미지화하고 그 이미지를 다시 몸의 서사로 꾸미는 작품과정이 주된 의도였다.

## 1 프로그램

### 1장 숨

#### 서예와의 만남

숨이 몸이 된다.  
숨이 몸이 되고 삶이 된다.  
숨이 몸이 되어 삶을 이루어 간다.  
이것을 생명의 감수성이라 할 수 있다.  
숨이 몸이 되고  
몸은 골짜기 되어 형상과 움직임을 이루어 간다.  
몸을 다시 만다. 이것은 숨 쉬는 몸을 깨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공기가 숨이 되고,  
마사 그레이엄이 숨이 되고,  
니체가 숨이 되어 만다.  
무용은 숨이 되고 형상이 되기 위한 매개체다.

### 2장 머리과중

#### 니체 철학과의 만남

(1) 도입부  
정신과 이성의 무게를 즉 머리의 과중으로 인한 균형의 상실이라는 테마를 요약한다.

#### (2) 출타는 광대의 추락

눈이여 호수여, 거기서, 물결의 펜치럼  
렘프의 비천한 그늘을 불러일으키는 어둠광대로  
다른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도취하는 것이다.  
나는 뉘트 벽에 창문을 뚫고 도망친 것이다.  
나는 손발로 수없이 뛰어올라  
서투른 광대 험웃을 경멸하는  
투명한 수영자의 발위자다! 마치 파도 속으로  
깨끗이 사라지기 위해 수없이 무덤을 신축한 듯하다.  
주먹에 역정을 내는 단광하게 웃는 황금의  
심벌의 태양에 갑자기 맞은 발기술사의 삶이  
나의 지원한 진주모(眞珠母)빛으로부터 깨끗이 발산한다.  
피부의 짙은 발이여, 너는 배은광필자,  
빙하의 위험한 물에 빠진 이 화장품이  
나의 유일한 축성식인줄 모르고 나를 떠났다. (말라르메의 시, "벌받은 광대" 중에서)

출타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는다.

일궜던듯한 웃음 입은 한 남자가 뒤이나와 맛줄 위로 걸어서 어우르고  
출타는 사람을 뛰어 넘어선다. 외설꾼인 그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가로 막고자 한다.

악마가 나의 발을 깊이 쓰러뜨리지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악마는  
출타는 광대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높은 곳에서의 동정, 미지의 것  
속으로 감히 나아감에 있어서 야기되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출타는 광대, 맛줄, 목표가 전진의 행위에 있어서 상호 융합된 전체이  
다. 출타는 사람은 이 통일을 아직도 관찰할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상실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여기서 육체와 영혼, 물질과 정신의 성공  
적인 통일, 매개를 선호하는 균형을 상실한다.

정신의, 이성의 자리로서 머리는 그에게는 진통적으로 승인된 우세이  
면서 과중이다. 이는 맛줄 위에서 움직일 수 있기 위해 중량을 균형 있  
게 분배해야 하는 출타는 사람에게는 생명적인 위험이 된다. 그를 추락  
시키는 것은 머리의 중량, 정신의 우세이다.

출타는 사람은 육체를 능가하는 불사적인 영혼이란 이제 존재하지 않  
는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육체와 영혼은 상호 병존하는 양극적  
대립에 불과하다.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역시 죽는다. 더 오래 사는 것  
도 아니고 죽을 이후의 어떤 위험도 영혼에게는 없다. 출타는 사람은  
이것을 전연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악마는 자기의 영혼을 불러  
데리고 가지 못한다.

그가 선택한 삶의 형식은 인간으로서 자기존재의 대립들 사이의 모습  
을 전디어 넘어서서 균형유지의 기술을 연습하는 그런 삶의 형식이다.

인간의 단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자신을 변형하는데 성공할 때까지  
이런 죽음(인류의 타락)을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신이  
악의 총괄개념인 물질을 무한히 능가한다는 확신을 가진 그런 인간상  
을 알릴지 같다.

#### (3) 코러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의 훈련과 습득은 인간이 인간적이 되어가  
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각의 보충에 의해 조화와  
통일의 성취를 함축하기도 한다. 삶의 궁정적 목표를 향한 전진의 행위  
를 출타는 기술에 비유하여 상징적인 몸동작으로 그려내고자 하는데  
그것은 출타는 사람의 통일성의 무너짐과 극복(과중)을 대미적으로  
그려내는데서 작품의 묘미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출타는 사람의  
통일성의 상실과 극복은 현대 인간의 삶에서 구성원 각각이 지니는  
가지관과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 3장 헤로디아드

#### 말라르메의 시, 마사 그레이엄의 '헤로디아드'와의 만남

이 장편의 의도는 종이 위의 말라르메의 시에서 느낀 '헤로디아드' 라  
는 여성과 마사 그레이엄의 자서전 등에 나타난 작품형성과 의도 등에  
관한 글에 토대를 두어 원작 <헤로디아드>(마사 그레이엄 안무 1944)  
영상에서 동작이위를 응용하여 재구성하였다. 말라르메의 시에 나타난  
헤로디아드의 여성과 심리를 재해석하는 것이 이 장편의 의도이다.  
젊음, 매력, 힘 그리고 여성의 힘의 상실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다룬다.

그레이엄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도 끊임없이 방황하는  
여인의 이미지를 갈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운명을 상징  
하는 검정색 유리 앞에 허약하게 빛나는 자신의 백골을 놓고  
있는 한 여인의 형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당신은 거울을  
쳐다볼 때 무엇을 보는가?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가, 아니면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것까지 보는가?  
만일 당신이 자기 성찰에 몰두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죽음을 깨  
지도 전혀 내다볼 수 있다. 거울은 그런 자기 관찰을 위한  
도구가 된다. 또 그런 거울을 보는 마음은 진실성을 추구하리  
는 의지로 통한다.

#### 1 주문

패벌하고 그 무서운 날개, 놀라운  
비추는 메기된 섬의 눈물 속에서, 벌거벗은 황금빛  
깃털로 진홍색의 공간을 지고  
하나의 새벽은 깃털의 몸장이 되어  
우리의 남쪽과 제국을 마치는 여자를 선택한  
한 마리의 아름다운 새가 도망쳐 나온 무거운 부딪.  
공허한 검은 깃털이 있는 개비의 고독한 번디.....  
아이! 부패한 슬픈 재앙의 영주의 지배!  
파도 소리도 없다. 그 검은 불은 운명을 체념한다.  
기어코 세 바위나 있을 수 없는 백조의 방반도 없다.  
물은 떠다 남은 것을 지우고, 가을의 고독을 그림판.  
그때 아직 빛난 적이 없던 어떤 옛 벌의  
깨끗한 다이아몬드에 피땀된 백조의  
머리는 창백한 영모(靈廟)인가 혹은 깃털 속으로  
모습을 감추고 만 것인가.  
죄악! 장작타미! 옛세! 고문!  
하늘의 저주! 저주! 저주! 공벌의 언발!  
그리고 장밋빛 위에 활짝 열린 이 그림 유리창

이 독특한 무대 장치의 방은  
호전적 시절의 전쟁도구, 색다른 황금.  
예전에는 고대 빛깔의 눈처럼 희던  
그 벌집이 장식에는 진주모의 광택이 있고  
마법사들에게 옛 손뼉을 바치는 무녀의  
울퉁 들어간 눈을 담은 주름이 있다.  
마법사의 한 사람이, 검은 은빛에 새를 흉내낸  
하늘에 가둔 하얀 상아빛 나의 옷 위의  
수놓은 과거를 가지를 가지고, 가장하고, 환영이 되어 날아오르듯  
듯이 보인다. 향기가 난다. 오, 장미여! 향기가 난다.  
물에서 끈 양초가 숨어 있는(하늘의) 빈 침대에서 벌이  
떠나서 향주머니 위를 방황하는 작가운 황금의 향기이다.  
달에 대한 위층지와 같은 하나의 꽃다발이다.  
(깨진 양초에 하나의 꽃은 아직 꽃잎을 떨군다)  
그 긴 회환이나 그 줄기도  
쇠약한 심광에 미치는 고독한  
유리 꽃병 속에 담가진다.  
새벽에 여인은 눈물 속으로 자신의 날개를 끌고 가고 있었다.  
상징적인 미술의 환영이여!  
오랫동안 방령을 불러 일으킨  
옛 목소리는  
주머니 능숙한 나의 목소리인가?  
마지 작가를 성체함의 혼란된 토착 위에서  
향을 피우고 배려 받은 하나의 벌과 같이 넓은

하나의 목소리가 누린의 주름 속을 아직 서성디며,  
그 구멍을 지나고 또 남고 거러진  
성광을 아름다운 실 레이스를 통하여 원사적으로 오르게 한  
저 수의의 몸통과 깨끗한 레이스에 의해서 관동된  
저 굳어진 구름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아이, 얼마나 먼 저러가 그 외치는 소리에 숨겨졌던가)  
이성한 주홍빛 보석에 싸이고 저 게으른  
목소리에 싸여서 어떤 시종도 없게  
그 낡은 침광은 마지막 광채에 그 황금을 뿌리고,  
그 목소리는 고뇌의 죽음의 투쟁의 시간에  
어쩔지 기원의 시로서 성모 찬가로 되는구나!  
그리고 그 침묵과 암흑의 그림자의 힘으로  
모든가 마찬가지로 옛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옛 샘물이 (운봉술) 감수하듯이  
속병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은 단조로움에 지쳐서,

그녀는 이따금 혼란하여  
비몽한 예언을 노래했다!  
독리지 거주 시동(海前)이 시종드는 식사용 침대는  
린베르가 아니라, 쓸모없는 수도원적이구나!  
꿈을 숨긴 그 그라운 마법지도  
또 못 쓰게된 염소 모직의 보직의 천蓋도  
잠자는 머리칼의 향기도 이미 없다. 있었던 적이 있는가?  
저가운 소녀는 신책을 미묘한 즐거움으로 여기고  
꽃이 추위에 떠는 아침에도  
또 석류나무 가지들 꺾은 첫꽃은 해질녘에도!  
초승달은, 그렇다, 시계의 시 분자판에 단 하나가 있다.  
무겁게 달려있는 루시페 마왕은  
언제나 사람을 해치고, 암흑의 눈물로 흘리는  
루시페로 언제나 새로운 시간은 오는 것이다.  
버림받고 방황하는 그녀의 망령위에는 그녀의  
말할 수 없는 발걸음에 시종드는 천사도 없다!  
황금을 주는 양은 그것을 모른다.  
오랜동안 그 옛날의 목이 마르고 있었던 것을,  
그의 아버지도 그것을 모른다. 또 그가 주검의  
피적 위에 누워 향기나는 포도의 비구니도 없이 수수께끼와 같이  
진나무 교목에 어둔 은빛 나뭇을 바칠 때에도  
그의 무기인 강철을 비추는 매서운 빗방울 모르는 것이다!  
그는 언젠가 알프스 이남의 나라에서 돌아오리라!  
꽤 입적이 모든 것은 예언이고 악몽뿐이니까!  
나뭇의 기원으로 저 우리 속에 솟은 손톱에  
옛 하늘을 태우고, 손가락을 하나의 칠투신 많은  
양으로 변화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곧 그 주홍색 땅거미가  
뿔뿔이치는 육체의 필발을 깨뜨으리라!  
땅거미가 아니고 주홍색 해돋이이다.  
모든 것을 끝내는 마지막 해돋이이다.  
사람들은 이미 그 시각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그 예언자 시대의 여명은 슬프게 불부릴지어  
눈을 짓털에 감추는 한 마리의 백조와 같이  
자신의 고귀한 마음 속으로 추방된 소녀를 위해 운다.  
그녀는 늙은 백조가 자신의 짓털속에 눈을 넣는 것과 같이  
그 짓털의 고뇌에서 벗어나 그녀의 회상의  
영원한 가르수 길로 사라졌다. 죽이까지 이미  
반짝이지 않는 하나의 별로 선택된 디아프란드를 보기위해. (1868년대 창작)

〈해로디아드〉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해봇의 이야기  
이다. (마가복음 6장 13절 22절)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해봇

왕이 죽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드에게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를 용서 없다고 하였으므로 헤로디아드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어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헤롯왕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잘 아는지라 죽이기를 꺼리어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런  
데 마침 헤롯왕의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드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왕  
을 즐겁게 하니 왕이 이에 만족하여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풀어주리라고 맹세하여 명하였다.  
이에 헤로디아드의 딸이 지어미 헤로디아드에게 가서 귀속말로 불은즉  
요한의 목을 베어 정반에 담아달라고 청하러 하였다. 지어미의 말에  
따라 그녀의 딸은 그렇게 하였다.

말라르메 자신은 시의 예술로서 이 서곡을 극으로서의 〈해로디아드〉보  
다도 완전하다고 생각했다. 이 시의 배경으로서는 고대 종교의 〈주름  
의 요술〉은 빼별하고 크리스토프의 예언자의 여말기가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말라르메의 인상주의적 상징주의가 일단 완성되었다고  
해도 좋다. 정신적으로는 고대 종교의 신비성을 품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라르메시집)

1944년 여름 그레이엄은 그동안 작업했던 새로운 작품 영화, 〈해로디  
아드〉를 신간 했을 때 작업주의자, 인종학자, 신비주의자들에게 큰 인상  
을 남겼다. 그것은 바바의 신도에 관한 뛰어난 뉴스영화였다. 그 예신  
도는 작은 산골마을에 살았는데 종교에 현실적으로 열성적인 신도의  
개보를 타고 나서 단일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남자 아이들이  
기의 열을 때 여신도들은 산에 홀로 들어가서 독사를 찾아 대항해야  
했다. 여신도는 파충류에 최면상태로 마주 앉아서 뱀의 머리로 몸을  
가려려 목에 세 번 입을 맞추는 의식을 지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여자에게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다. 그레이엄은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  
듯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상한 영화뉴스로부터 소재를 변형시켜  
해로디아드와 그녀의 기을 사이, 헤로디아드와 그녀의 피곤에 지친  
게 하는 여자 사이의 죽음의 무용으로 변형시켰다. 그들은 서로 노력  
보고 혼합되고 서로 섞어 혼합되고 짜면서 서로 응시한다. 헤로디아드  
는 각을 대하고 있다. 헤로디아드는 죽음을 대하고 있다. 그레이엄은  
당시 노년을 대하고 있었다. 무용으로 젊음에 대한 고별을 말한다  
고 느꼈다. (The Life and Work Of Martha Graham)

그레이엄은 그런 여인의 아버지를 말라르메Mallarme의 시에서  
알았다. 그 여인은 방으로 들어가서 의사 죽을 향한다. 그리고 몇 번  
주춤 뒤에 의자에 앉는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한 시인의 두 다리를 쭉 내뻗  
음으로써 그 의자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해 버린다. 그러면 앞에서 그녀  
를 지키고 있던 한 여인이 김정학 카를을 가져다 준다. 그 순간 헤로디  
아스(Herodias:정서의 인물로 헤로드 안티파스의 두 번째 아내)가 의자  
를 박차고 일어난다. 그녀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 작품에서 이시무가 나에게 강조한 것은 끊임없이 혼을 부르는 행위  
였다고 생각한다. 해골 깊숙한 곳에는 아주 작고마한 불체인 새 한  
마리가 자리잡았다. 나는 그 새를 보는 순간 끊임없이 삶에 부대끼야  
하는 헤로디아스의 심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내가  
그 해골을 향해 걸을때는 걸음걸이 자체가 약간 특수해야만 했다. 내가  
기도한 이미지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화상이 북쪽지점으로 날아  
가는 듯한 걸음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의 시선은 자리에  
라도 이끌리듯이 한 지점 바로 세계개방 향해야 했다. 우리 모두는 시  
로를 어끄는 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그 자력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는 〈해로디아드〉를 공연할 때마다 내가 무대를 뛰어다니도록 힘을  
붙여넣는 무엇인가가 별도로 있다는 생각을 종종 된다. 바로 그 힘이 이  
사부의 가슴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예술가들은 이같은 힘  
을 발휘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인 삶을 살게 된다. (「정경의 기억, 중세세



## 장정윤 현대무용 최근연혁 | History & Performance

1997.	04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공연 〈그 여자의 그림자〉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여자) 안무 및 참가공연, 예술의 전당
	06	제7회 대구 무용제공연 〈굴암〉 안무 및 참가공연, 대구 문화회관
	07	부산 여름 무용축제 이의공연 〈중앙〉
	10	제19회 서울 국제무용제 공연 〈별의어장〉 안무 및 출연 서울 문화회관
	12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공연 〈그 여자의 그림자〉, 〈별의 장〉 부산문화회관
1998.	05	제17회 국제현대 무용제공연 (작은 침의 요괴) 안무 및 출연
	07	제7회 부산무용제 공연 〈얼룩스 마술〉 안무 및 출연 부산문화회관
	08	제7회 전국무용제 공연 〈얼룩스 마술〉(우수상, 연기상, 미술상) 진주 상징문화회관
	12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공연 〈Duel〉의 부산문화회관
1999.	05	제18회 국제현대 무용제 공연 〈14'65〉 서울 문화회관
	06	필라델피아 2000 Fest Dance Festival 공연 The UA Theatre, 필라델피아 미국
	06	제8회 부산무용제 특별 초청 공연 〈얼룩스 마술〉 부산문화회관
	11	춤과 건축의 만남(충무예술회관) 〈열린담, 살아있는 신화〉 안무
	11	(비디오 포럼)춤과 건축의 만남(충무 포스터 극장)
	12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공연 (에로스의 딸), 〈기러기를 달리는 사람들의 신화〉 안무 및 참가공연, 부산문화회관
2000.	06	무용대원 지원 (울수도 사랑가) 공연 하구동 기념관 광장
	07	서울 WDA추석이벤트! 덴스마켓 (The Buria) 안무 및 참가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08	부산비다춤제 다채로운(현대무용축제)공연 다채로 해수유장
	08	부산어류무용축제(중년무용의 방음) 공연경성대학교 콘서트홀 (타인) 안무 및 참가공연
	12	부산 시민무용단 제44회 정기공연 특별출연 (복숭)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2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공연(나세 서거 100주년 기념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01.	05	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막식 식전행사 안무 및 참가공연, 구덕운동장
	10	부산 시민의 날 축하공연 (아생의 가) 안무 및 참가공연 부산문화회관
	11	제1회 서울 공연예술제 갈라 초청공연 (아리랑 & 빛깔) 안무 및 참가공연 서울문화회관
	12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공연 안무 및 참가공연, 경성대학교 정보관
2002.	01	부산 해방이 축제공연 안무 및 참가공연, 해운대해수욕장
	07	(Skrworm) by Chang Chung Yoon, Mercè Cunningham Dance Studio NewYork
	11	(한국의 춤, 세계의 춤)참가공연, 미스코리아의 (토벨조선)의 서울문화회관
2003.	03	(대구지역춤 작가) 참가공연, 대구문화회관 대극장
2003.	04	(부산국제춤축제) 공연 참가 작품출연, 경성대학교 정보관 소극장
	04	(장정윤 순수현대무용) 참가공연, (혁신탄생) 안무 및 참가공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1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개관축하공연 6개광역시(시)합동공연 (혁신탄생) 안무 및 참가공연
2004.	05	제23회 (modate) 국제현대무용제(Kid-Fishing Taekkyun) 안무 및 참가공연
	07	2004 부산국제어류무용축제 (아인인) 안무 및 참가공연
	10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상징공연 (검투비유) 안무 및 출연
2005.	08	부산국제어류무용제 안무 및 참가공연
	09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상징공연 (이성미의 방판)의 안무 및 출연
	09	제14회 전국무용제 참가공연(자유참가형 안무)장정윤
2006.	07	제15회 부산무용제 참가공연(우수작) 안무 및 참가공연
	09	부산 대학무용제 (정향과 지연의 숲) 안무, 부산대학무용진흥회주최 부산문화회관
	09	제15회 전국무용제참가공연 (우주나무) (안무)장정윤, 연기상 수상
	11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상징공연 안무 및 출연
	12	(Color Of Dance, Black) "흑색의 신성과 평가" 안무 및 출연 세계무용제 주최, 정동극장
2007.	06-07	Merce Cunningham Dance Foundation Inc. 해외연수
	07	제16회 부산무용제 축하공연 (우주나무)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09	제9회 생생춤페스티벌 참가공연,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10	장정윤 순수무용공연, 6개광역시의 제주도 무용교류전 참가공연, 부산문화회관
	11	(한국의 춤 세계의 춤) 안무와 출연
2008.	02	The Old Pot by Chung Yoon Chang Dancers, 카닝햄 댄스홀, 뉴욕사 미국 (Merce Cunningham Dance Studio, Westbeth)
	06	장정윤 작품발표, 대전대학교 음악원 초청공연 대전시, 중극
2009.	06	제4회 부산국제무용제 국제비 초청공연 (수선으로 가는 정문) 안무와 출연, 해운대 북실무대
	12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참정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0.	05	제29회 국제현대무용제 국제초청발 공연 "별이" 안무와 출연, 이코르예술극장 소극장
	06	로그원대무용단 창단 20주년기념 초청공연 "장정윤 현대무용", 마산 31501트윈터 소극장
	08	(장정윤 대구시(무용단) 객원안무 "Xing Mercism", 대구문화회관
	09	(2011 생생춤페스티벌) 참가공연 장정윤 순수무용단 "추리미 탈춤" 안무
2011.	01	장정윤과 로그원대무용단의 2011스케이프무용공연 안무와 출연, 예술감독 부산민주공영 소극장
	03	2011 장정윤 순수현대 무용창작공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04	세계무용의 날 기념 기획공연 (귀스타) 안무와 출연 부산광역시문화회관 대극장
	04	부산국제무용제 찾아가는 홍보공연 다채로춤축제
	06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 축하가(타인) (비다무용) 안무공연 해운대북실무대
	10	제20회 전국무용제 초청공연 "영인영무전" (수선연가)안무와 출연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1	2011 부산 대학무용제 (위대한 괴담) 안무 울수도문화회관 대극장
	12	장정윤의 현대무용2012,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12.	10	한국의 춤 세계의 춤(대전무용회) 안무, 서경대학교 예술홀
2012.	12	2012송년 3기단체합동공연 "춤은갈무리하다" 안무와 출연, 국여원
2012.	12	2012국제어류제(대구)기획전 "공감" 출연, 부산중극장
2013.	01	육원촌 현대무용50년 페스티벌 안무와 출연, 서울이코르대극장
2013.	06	제9회부산국제무용제 국제공연초청공연 "비다평성" 안무와 출연, 해운대북실무대

### 스텝

- 안무와 연출 | 장정윤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 서예 | 어남희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무대미술 | 남영우
- 의상 | 배용
- 출연 | 장정윤 | 강용기 | 정보람 | 윤승호  
신지영 | 마에지 | 최예진 | 이수연
- 영상 | 이브스튜디오

